

‘한 방 싸움’ 호랑이 방망이를 달궈라



T 타이거즈 전망대

홈런 2위 SK·넥센과 격돌... 불펜진 평균자책점 1.93 ‘든든’ 개막전 뜨거웠던 나지완·이범호 페이스 끌어올리기 관건

■ KBO 정규리그 순위 <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개런치
1	NC	8	6	0	2	0.750	0.0
1	SK	8	6	0	2	0.750	0.0
3	두산	8	5	0	3	0.625	1.0
3	넥센	8	5	0	3	0.625	1.0
3	kt	8	5	0	3	0.625	1.0
6	KIA	8	4	0	4	0.500	2.0
7	LG	8	3	0	5	0.375	3.0
7	삼성	8	3	0	5	0.375	3.0
9	한화	8	2	0	6	0.250	4.0
10	롯데	8	1	0	7	0.125	5.0

정교함이 필요한 ‘한 방 싸움’이 KIA 타이거즈를 기다린다. 아쉬움 가득한 지난 한 주였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주중 홈 3연전에서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던 KIA는 첫 원정경기에서는 루징시리즈를 기록했다. LG 트윈스와 잠실에서 격돌했던 KIA는 1일 끝내기 패를 당하며, 3승 3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타선의 기복이라는 고민이 남았다. KIA는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 안치홍의 ‘한 이닝 2홈런’ 등 6개의 공을 담장 밖으로 보내며 17-0의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삼성 고졸 신인 양창섭의 패기에 놀려 이렇다 할 공격도 못하고 0-6 영봉패를 기록했다. 삼성과의 마지막 경기에선 첫 선발 출장에 나선 정성훈이 타이거즈 소속으로 5645 일 만에 홈런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주말 3연전에서는 시원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았다. LG와의 첫 경기에서 4-3 진 땅승을 거둔 뒤, 양현종이 6.1이닝 6실점으로 흔들리면서 패배를 기록했다. 그리고 1일에는 바다리나와 최형우가 잠실 담장을 넘겼지만 9회 2사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5-6 끝내기 패를 당했다. 주말 3연전에 헥터-양현종-팻인이라는 3명의 확실한 선발을 투입했던 만큼 더 아픈 패배였다. KIA(4승 4패)는 이번 주 SK 와이번스(6승 2패)와 원정 3연전을 치른 뒤 주말 안방에서 넥센 히어로즈(5승 3패)를 상대한다. KIA(14개)에 앞서 팀홈런 2위(19개)에 올라있는 SK는 54타점으로 KIA와 공동 1위. 득점권 타율은 0.307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두 팀은 만나기만 하면 방망이 전쟁을 벌였다. 12개의 홈런을 기록한 넥센도 박병호로 무개를 더해 광주를 찾는다. 0.290의 팀타율로 KIA(0.309)에 이어 3위인 넥센은 득점권 타율은 떨어지지만 0.380의 출루율로 KIA(0.387)를 쫓고 있다.

타자들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한 주다. KIA는 개막 후 8경기를 3.44의 평균자책점으로 막으며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불펜진이 1.93의 평균자책점으로 철벽 방어를 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뒷심 싸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타선의 온도차가 KIA의 초반 질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개막 두 경기 만에 페이스가 푹 떨어진 나지완이 가장 큰 고민이다. 나지완은 kt와의 개막 2연전에서 홈런 포함 4안타로 5타점을 수확하면서 절정의 타격감을 과시했다. 삼성과의 첫 경기에서도 2루타와 함께 두 개의 볼넷도 골라냈다. 하지만 이날 경기 포함 두 경기에서 연달아 공에 맞으며 한 주를 시작한 나지완은 6경기에서 단 하나의 안타 밖에 남기지 못했다.

이범호도 지난주 16타수 2안타로 0.125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면서 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졌다. 최형우의 움직임에도 눈금이 가는 한 주다. 최형우는 3경기에 더 나오면 통산 68번째 1300경기 출장 주인공이 된다. 6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1500안타(통산 30번째)가 채워진다. 최형우는 팀 3900홈런도 이끈다. KIA는 통산 두 번째 팀 3900홈런에 7개를 남겨두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이민우의 어깨가 무겁다. 4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이민우는 3일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다. 첫 등판에서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이민우의 성적이 따라 KIA의 승패와 한 주의 볼넷 운영 모습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민우의 상대는 SK 잠수함 박종훈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일은 주전’ 퓨처스리그 오늘 개막



남부·북부리그 12경기씩... 서머리그 대폭 확대 KIA 경산서 삼성과 격돌... 챔스필드선 9경기

2018 KBO 퓨처스리그가 3일 6개 구장에서 개막한다. KIA 타이거즈는 경산으로 가 삼성 라이온즈와 대결을 한다. 퓨처스 리그는 남부리그(KIA, 상무, kt, 한화, 삼성, 롯데)와 북부리그(경찰, SK, 화성, 고양, LG, 두산)로 나눠 진행되며 동일리그 팀 간 12차전씩(홈 6경기, 원정 6경기), 인터리그 팀간 6차전씩(홈 3경기, 원정 3경기) 팀당 9경기를 소화한다.

올 시즌 ‘서머리그’의 확대가 눈에 띈다. 전 경기가 야간에 진행되는 서머리그는 현장과 팬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난해 72경기에서 올해 120경기로 대폭 확대됐으며,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퓨처스리그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하지만 혹서기인 7월과 8월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 안배를 위해 전 경기를 오후 시작한다.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는 1차 서머리그로 편성해 KBO리그와 같이 평일 6시 30분, 주말 6시 등 야간 경기로 치른다. 챔피언스필드를 비롯한 KBO 리그 구장에서 24경기(광주, 사직, 대구, 마산 각 6경기), 퓨처스 구장에서 18경기(이천, 서산, 문경 각 6경기), 춘천·군산·기장 등 연고 외 지역 구장에서 30경기가 열린다. 이 기간 매주 목요일은 휴식일이다. 2차 서머리그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 잔치로 인한 KBO 리그 중단 기간인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다. 2차 서머리그 기간에는 KBO 리그 구장에서 총 48경기(잠실 12경기, 문학·사직·수원·대전 각 6경기, 광주·대구·고창·마산 각 3경기)가 개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는 또 퓨처스리그 활성화를 위해 ‘KBO 퓨처스리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퓨처스리그 경기일정과 경기결과, 순위, 기록 등 퓨처스리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삼성과 개막전을 치르는 KIA는 주말에는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상무와 대결을 갖는다. 3군 선수단은 3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호원대와 연습경기를 한다. 어깨 부상에서 회복한 사이드암 임기영은 3군 연습경기에서 첫 실전을 소화한다. 한편 KIA는 올 시즌 ‘미래’를 핵심 키워드로 해 신진 선수들의 육성에 초점을 맞춰 퓨처스 선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현 ‘세계 19위’ 20위 돌파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이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로는 네 번째로 세계 랭킹 20위 벽을 넘어섰다. 2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 랭킹에 따르면 정현은 2주 전 23위에서 4계단 오른 19위에 자리했다. 이로써 정현은 비제이 암리트라지(65·인도), 파라돈 시차판(39·태국), 니시코리 게이(29·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세계 랭킹 20위 안쪽에 진입한 아시아 남자 선수가 됐다. 이 가운데 1953년생인 암리트라지는 1973년에 세계 20위에 올라 아시아 남자 선수 중 최연소 20위 벽 돌파 기록(19세 9개월)을 보유하고 있다. 니시코리는 만 22세 1개월, 시차판은 23세 5개월에 각각 20위 벽을 깬다. 1996년 5월생인 정현은 만 21세 11개월에 20위에 오르며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20위를 넘어선 아시아 남자 선수가 됐다. 역대 아시아 남자 선수의 최고 랭킹 기록은 니시코리의 4위다. 시차판은 9위, 암리트라지는 16위까지 올랐다. 시차판과 암리트라지는 은퇴했고, 니시코리는 이번 주 순위에서 39위를 기록했다. 지난 31일 귀국한 정현은 “한국 선수로서 최고 랭킹을 쓰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현은 2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에 출전한다. 한편 이날 순위에서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로저 페더러(스위스)를 2위로 끌어내리고 1위에 복귀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시즌 첫 세이브

‘돌부처’ 오승환(36)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오승환은 2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 7-4로 앞선 9회초 등판, 1이닝을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팀 승리를 지켰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날스에서 2016년 19세이브, 2017년 20세이브를 거둔 오승환은 이날 경기로 메이저리그 통산 40호 세이브를 올렸다. 오승환의 등판은 저스틴 스모크의 방망이에서 시작했다. 1-4로 끌려가던 토론토는 스모크가 7회 말 2점 홈런, 8회 말 만루 홈런을 연거푸 쏘아 올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주전 마무리 로베르토 오수나가 직전 2경기에서 모두 등판했던 토론토는 마무리 경험이 풍부

한 오승환에게 9회를 맡겼다. 오승환은 첫 타자 게리 산체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해 가볍게 출발했다. 볼 카운트 1-1에서 슬라이더로 파울, 그리고 슬라이더를 다시 던져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했다. 브렛 가드너는 공 4개로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가운데 오승환은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홈런왕 에런 저지에게 볼 카운트 2스트라이크에서 좌익수 앞 안타를 맞았다. 2사 1루에서 작년 내셔널리그 홈런왕 장 칼로 스탠턴과 상대한 오승환은 2볼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포심 패스트볼 2개로 스트라이크 2개를 잡은 뒤 슬라이더로 외야 뜬공을 유도해 경기를 끝냈다. /연합뉴스

오타니 3실점 ML 첫 승

투타를 겸업하는 일본인 오타니 쇼헤이(24)가 미국프로야구(MLB) 첫 선발 등판에서 역사적인 첫 승리를 수확했다. 오타니는 2일 오슬랜드 에슬레틱스와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 6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 안타 3개를 맞고 3점을 줬다. 삼진 6개를 뽑아낸 그는 7-3으로 앞선 7회 마운드를 캠 베드로시안에게 넘겼다. 에인절스가 7-4로 이겨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오타니는 1회 첫 타자 마커스 시미엔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삼진 2개를 속아내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2-0으로 앞선 2회 1사 후 연속 안타를 맞은 뒤 멧 채프먼에게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석 점 홈런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오타니는 최고 시속 161km에 달하는 직구를 앞세워 추가 실점 없이 오슬랜드 타선을 요리했다. 총 92개의 공을 던져 63개를 스트라이크로 쏘았다. 오타니는 팀 청백전과 시범경기 5경기에 등판해 13이닝 동안 자책점 17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했지만, 이날 2회 이후 안타를 1개도 내주지 않는 안정적인 투구로 우려를 지웠다. 오타니는 지난 30일 오슬랜드와의 정규리그 개막전에선 8번 지명 타자로 출전해 2회 첫 타석에서 빅리그 통산 첫 안타를 신기록했다. 오타니는 1920년 조 부시(보스턴 레드삭스), 클레런스 미첼(브루클린 다저스) 이후 98년 만에 메이저리그 첫 10경기에서 투수와 타자로 각각 데뷔한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다저스, 샌프란시스코에 9-0 완승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완승했다. 다저스는 2일 MLB 정규시즌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에서 투타 조화를 앞세워 9-0으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와 개막 4연전에서 2승 2패로 균형을 맞췄다.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이었다. 다저스는 좌완 리지 힐이, 샌프란시스코는 우완 크리스 스트랜턴이 경기 중반까지 무실점 행진을 벌였다. 스트랜턴에게 3회까지 안타를 하나도

뽑아내지 못했던 다저스 타선은 4회말 기지개를 쳤다. 코리 시거와 아시엘 푸이그의 연속 안타로 잡은 1사 1-2루에서 코디 벨린저의 외야 뜬공이 나왔고, 2루 주자 시거는 태극마크 3루에 안착한 뒤 상대 수비 반트를 놓치지 않고 홈까지 파고들었다. 다저스는 6회말 무사 2루에서 푸이그의 1타점 2루타와 야스마니 그란달의 1타점 적시타, 벨린저의 2점 홈런을 묶어 5-0으로 달아났다. 이어 8회말에는 무사 만루에서 엔리케 에르난데스의 2타점 2루타와 피타손의 내야 땅볼, 오스틴 반스의 안타로 9-0까지 벌렸다. /연합뉴스